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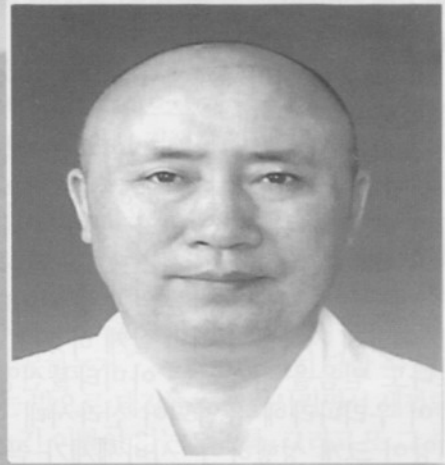
백인에게 듣는다(마흔다섯번째)

정명스님 신년 열린법회

- 주제 : “신통이나 기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 일시 : 불기2551(2007)년 1월 20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정명스님 약력]

- 한국불교문화원 : 삼장교수
- 한국불교통신대학: 부학장
- 안산불교대학 : 학장
- 안산유마정사 : 주지
- 안산단원경찰서 : 경승실장
- BBS불교방송에서
 - . 자비의 전화 . 불교경전강의
 - . 마음의 향기 법문 . 일요일 라디오 법회 법문
- 전국 유명사찰, 포교당 각종 법회 법문



1월 사찰문화 답사

서산 부석사, 간월암, 보원사지,
마애삼존불

- 일 시 : 2007년 1월 21일(일)오전7시30분
- 출발지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1월호



신년사

정해년 새해 아침을 열며...

경기불교문화원 원장 우양금당 진철희



정해년의 새 아침이 붉게 광고산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불교문화원의 가족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부처님에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은 10간 12간지로 다산과 다복을 겸하는 황금돼지해라 금년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 운을 타고 난다는데 새해부터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나누면 신명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불교의 믿음도 이렇게 신명나면서 굳게 믿어야 신심과 불심이 절로 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장비구가 “이 세상에 고통 없고, 빈부차이가 없고, 남녀차별 등이 없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한 번 만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장비구스님은 부처님을 무조건 믿었기에 살아있는 모든 자를 구제한다는 48원(願)을 세워 10겁(劫)의 세월동안 수행을 하여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이 되었다합니다.

그 뒤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설법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본원인 시간과 공간의 주역으로 모든 별나라의 신들과 보살을 지휘 감독하는 아미

타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색은 빨강, 상징하는 자세는 선정인, 사물은 발

우(鉢盂), 타고 다니는 것은 공작, 방향은 서쪽이며 아미타불은 장수하게 해주는 존

재로서 무량수불(Amitayus:산스크리트어로 무한한 수명)으로 아미타불을 믿

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불이 건설한 정토에 태어나서 열반

에 이를 때까지 지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아미타불신앙은 650년경부터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신라시대 이후로 극락에 태어나고자하는

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여 “사바세계가 곧 극락정토요, 현실세계와 극락

세계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여 현실 속에서 극락세계를 실현하고 있습

니다.

경기불교문화원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일체중생을 건지려는 대승경전의 사상인 보살정

신의 화신이신 아미타불을 염원하면서 정신적인 완성은 물론 물질적인

완성까지도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굳은 서원을 세워 실천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해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말씀(13)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 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 법구경 103 -

A man may conquer a million men in battle but one who conquers himself is, indeed, the greatest of conquerors..

- DhammaPada 103 -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통권37호
목탁

황금돼지의 행운...



조계종 포교사/본원이사/권중서

올해는 600년 주기의 황금돼지 해라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크게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들떠 있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운명적으로 정해진 인생의 행복보다는 연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디에 따로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해년 돼지해를 맞이하여 불교적인 관점에서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바라하 목카 상하 목카야 사바하”라는 구절이 있다. 이 뜻은 “멧돼지 얼굴을 하신분과 사자 얼굴을 하신 분께 사뢰옵나니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멧돼지 형상을 한 비시누(Visnu) 신의 세 번째 화신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약사경에 보면 동물형태의 12지신인 12야차대장이 약사여래의 호법신장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 12번째가 돼지의 머리에 사람의 몸 형태를 하고 있는 신두라(Sindura)신으로 북서북의 방위에 자리하며 무기로는 쇠사슬을 지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의 용맹스러움은 본생경(자아타카) 「공장양저(工匠養猪)의 전생 이야기」에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숲의 목신(木神)으로 태어났다. 어떤 목수가 기동감을 얻기 위해 숲속에 들어갔다 함정에 빠진 돼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길렀다. 그래서 그 돼지를 공장양저라 불렀다. 그는 자라 몸이 커지고 이빨은 활처럼 굽으며 예의바른 돼지가 되어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연장을 운반하기도 하며 목수의 일을 도왔다. 그러나 목수는 누가 그 돼지를 잡아먹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놓아주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뿌리, 과일 등이 많은 살기 좋은 산골짜기를 발견하였다.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그를 보고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여기는 참으로 즐거운 곳이다. 나도 여기서 살기로 하겠다. 그런데 그대들이 몸에 살도 피도 없어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호랑이 한 마리가 아침마다 와서 보는 대로 잡아간다.” “그대들이 이처럼 많은데 한 마리의 호랑이를 당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 “나는 호랑이를 사로잡으리라.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그는 밤으로 돼지들을 훈련시키면서 새끼돼지와 어미돼지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는 암돼지와 젊은 돼지를, 그 주위에는 긴 이빨이 있는 돼지를,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전력이 강한 돼지를 열 마리 또는 스무 마리씩으로 밀집부대를 만들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진지 앞에는 하나의 둥근 구덩이를 파고, 그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동굴과 같은 것을 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훈련을 시켰다.

호랑이는 일어나 때가 온 줄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맞섰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돼지를 흘겨보았다. 공장양저는 돼지들에게 따라서 흘겨보라고 신호하였다. 그들은 모두 호랑이를 흘겨보았다. 호랑이는 입을 열어 용기를 돋우었다. 돼지들도 그대로 하였다. 호랑이가 오줌을 싸면 돼지들도 오줌을 찼다. 이렇게 무엇이나 호랑이 하는 대로 하였다.

호랑이는 가만히 생각하였다. “이전에는 돼지들은 나만 보면 곧 달아났다. 그런데 지금은 달아나지 않고 내 적이 되어 내 흉내만 낸다. 저 대지에 한 마리가 서있다. 저것은 저들의 지휘자이다. 이제는 승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는 모를 것이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호랑이는 다시 용기를 내어 대지위에서 있는 공장양저를 덮쳤으나 몸을 피해 미리 파 놓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튀어나와 나동 그러진 호랑이를 번개처럼 달려가 이빨로 호랑이의 안쪽 다리를 덮쳐 신장 끝까지 찢고 머리를 때려 부수어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장양저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 숲에 살던 여신은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계승을 읊었다.

“대중의 모임에는 행복 있으라. 그 불가사의한 우정을 보고 나는 말하노니 이빨의 힘의 도움에 의해 저기 이빨 있는 돼지는 호랑이를 이겨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나니”

새로운 정해년 한해는 희망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은 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공장양저와 같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잘 가려서 뽑아 국민 서로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다면 60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해의 행운을 나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불교

현대트랜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태양속의 새 三足鳥



조계종 포교사/본원이사/ 권중서

요즈음 어느 TV에 주몽 연속극이 유행하여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어 그나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조상은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자 하였는지 사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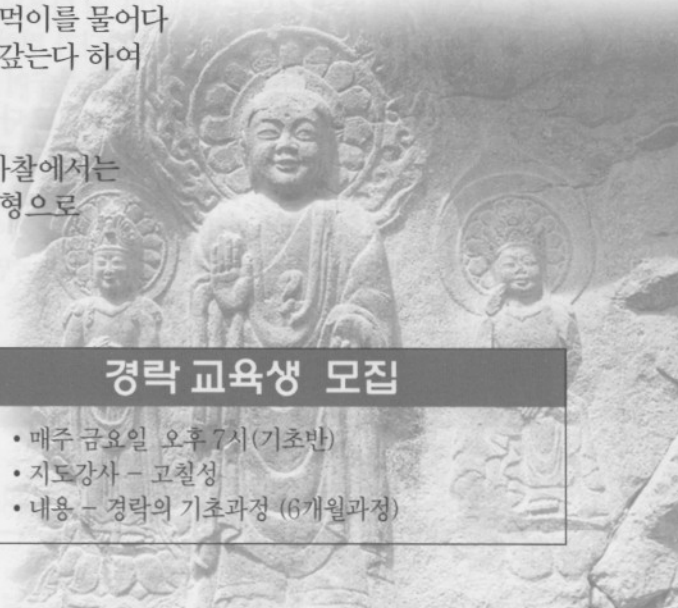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미신이다, 촌스럽다하여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은 결과 이제는 우리의 것을 몽땅 주변나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진 시점에서야 호들갑을 떨고 내 것이다, 우리조상의 것이다, 우리국토다, 난리를 쳐봐도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기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민족의 고유사상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민족임을 다시 한 번 과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축년 새해에 우리의 기상을 펼치는 3발 달린 까마귀인 삼족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三足鳥는 태양의 영원함과 세발달린 까마귀의 신비스러움이 함께 어우러진 문양으로 우리들의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충분하다. 특히 중국 집안현에 있는 角抵塚(무덤 내부에 써름하는 사람이 크게 그려져 있어 각저총이라 함) 널방 동쪽 벽 써름하는 인물 바로 위 천정 고임 벽화인 태양속의 세발 달린 까마귀는 지금 이라도 곧 벽화 속 태양에서 나와 옛 고구려로 날아가 버릴 듯 생생하다.

삼족오는 태양을 상징하는 不死鳥로 중국 옛 문헌인 산해경에 태양 속에 까마귀를 싣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중국의 고대 신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세기 초 각저총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三足鳥는 다리를 세 개 가진 상상의 새로 원형의 붉은 태양 속에 가득 채워진 검은 몸과 날아갈 듯 양 날개를 세우고 전면을 향한 머리,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입을 벌린 부리,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冠장식의 벼슬, 뚫어질듯 바라보는 흰빛의 눈, 일렬로 서있는 가지런한 세 개의 다리, 새를 닮지 않은 꼬리와 그 주변의 수없이 펼쳐진 넝쿨무늬 등 무엇 하나 신비스럽지 아니한 곳이 없다.

또한 삼족오는 태양과 같은 절대 권력자인 왕을 상징하여 고구려 고분 진파리 1호분에서 출토된 透刻金銅冠의 중앙부에 이중의 원곽 안에 환상적인 삼족오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삼국유사에서 까마귀는 닥쳐올 앞일을 점쳐주는 길조로 불행을 미리 막고자 정월 보름날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준 것이 정월보름날 찰밥을 먹는 풍속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까마귀는 효도를 상징하는 새로 어미 때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어미가 늙게 되면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주어 은혜를 갚는다 하여 反哺報恩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기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삼족오를 사찰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수미단이나 스님의 가사에, 또는 부도비에 조형으로 나타내어 우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경락 교육생 모집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기초반)
- 지도강사 - 고철성
- 내용 - 경락의 기초과정 (6개월과정)



법문

12월 송년법회 정무 큰스님 법문



정무큰스님

이 글은 12월 송년 법회 때!
정무 큰스님의 법문 중 의식의 수치를 발췌 게재합니다.

* 의식의 수치 *

우리는 이제 진실과 거짓 여부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선의와 악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손 안에 쥐게 되었다. 지금껏 간과되어왔던,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감추어진 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풀 수 없었던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거머쥐게 되었다. 더 이상 거짓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식의 지도

건강, 행복 : 선의 길 200이상 ⇔ 질병, 불행 : 악의 길 200 이하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매일 점검한다.

이것이 일로 향상의 길이요 세상을 위한 충실한 삶이요 후회 없는 영원한 행복의 길 **경이**

수치	신의 관점	세속의 관점	수 준	감 정	과 정	비고	
						10인	10법계
무량수	청정	광명	해탈	구경	열반	성인	불타
1000	자아	존재	깨달음	언어이전	순수의식	현인	보살
600	항상 존재하는	완전한	평화	축복	자각	군자	연각
540	하나	전부 갖춤	기쁨	고요함	거룩함	달인	
500	사랑	자비로운	사랑	존경	계시	천재	성문
400	현명함	의미 있는	이성	이해	추상	수재	
350	인정 많은	화목한	포용	용서	초월	천상	천상
310	감화를 주는	희망에 찬	자말성	낙관	의향		
250	능력이 있는	만족한	중용	신뢰	해방	법부	인간
200	용납하는	가능한	용기	긍정	힘을 주는		
175	무관심한	요구가 많은	자존심	경멸	과장	저능	수라
150	복수에 찬	적대의	분노	미움	공격		
125	부정하는	실망하는	욕망	갈망	구속	천치	축생
100	징벌의	무서운	두려움	근심	물러남		
75	경멸의	비극의	슬픔	후회	낙담	백치	아귀
50	비난하는	절망의	무기력	절망	포기		
30	원한을 품음	사악한	죄의식	비난	파괴	지옥	지옥
20	멸시하는	비참한	수치심	굴욕	제거		

12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2,424,88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장명순,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윤영무,
 정무근,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구광국, 현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김용필,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정해영,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양희선, 박진배, 조정자, 윤광숙, 김경수, 염규용,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진기홍, 조남중, 차용희, 이상님,
 정경화, 서의호, 박영희,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이기원, 어윤식, 정재안, 정효진, 신윤식, 박홍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김덕희, 주인수, 박 영, 김묘정, 청정심, 조권형, 이응우, 손용식, 오도회, 장상덕, 백종복, 이수교, 김명옥,
 성지현, 김혜자, 신연자, 이사현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 241-1004 / 원장실 031) 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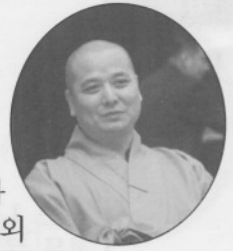
어 / 학 / 강 / 좌

- 영 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최 영 혜
- 중국어 : 매주 목요일 2시 30분 강사. 안 미 영
- 수강료 : 3개월 60,000원



열두 보살과 12지신의 상징 (1)

정엄스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 불자님들과 가장 친숙한 천수경에 나타난 불보살님과 십이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연재하오니 불자님과 인연 깊은 보살님과 십이지를 외어서 기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만월(滿月)보살과 쥐신(子神) : 인간세상을 암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밤이면 달빛을 내려 보내는 일을 맡은 신들이 둥근달에다 광명의 물을 퍼다 붓는다. 달에 물을 채우는 만월(滿月)보살. 그러나 광명이라는 물을 길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암흑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명의 물을 먹어 치우는 마귀를 잡아 없애려고 쥐의 신으로 변화하여 세상에 오셨다. 쥐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별나라에 가서 부지런히 광명의 물을 길어오는 노력의 상징이다.

나) 천수천안(千手千眼)보살과 소의 신(丑神) :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눈과 손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천수천안(千手千眼) 보살은 잠시도 쉴 사이가 없이 바쁘다. 인간세계는 눈과 손으로 인하여 인간세상은 큰 혼돈이 일어난다. 천수천안(千手千眼) 보살은 잘못된 눈과 손을 고쳐주기 위하여 소(牛)가 되어 인간세상에 내려왔다.

다) 대륜(大輪)보살과 호랑이신(寅神) : 모든 별나라를 지배하고 신들의 권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수레의 바퀴를 만드는 보살이다. 모든 신들은 그 권능의 수레를 타고 맡은 나라를 두루 살피며 관리하고 지배한다. 인간들이 그 권능을 남용하고 인간을 다스림에 하자가 있어 오히려 그 권능으로 전쟁을 일삼아 인간세상을 불안하고 혼동케 한다. 그리하여 직접 수레를 타고 내려와 인간세상의 권능을 평정하게 된다.

라) 수월(水月)보살과 토끼신(卯神) : 인간세상의 암흑을 막기 위해 달에 광명의 물을 붓도록 달을 만드는 보살이다. 만들어진 달에 광명의 물을 붓는 일보다는 달의 원형을 만드는 일에 더 흥미가 있었다. 그래서 물마다 비친 달이 실제의 달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생각이 실제인 양착각 되어 그렇게 말했다가 직접 내려가 그 달을 건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인간세상에 내려왔다. 환상의 달을 실제로 찾아 지상에 내려온 수월(水月)보살은 토끼신이 되었다. 이렇게 환상을 찾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토끼신(兔神)은 할 바가 많은 성미를 타고 난다.

마) 관세음(觀世音)보살과 용신(辰神) : 인간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의 목소리로 애원할 때 그 소리를 다 듣고 분석하여 소망을 이뤄주는 보살이다. 그러나 중생의 소망이 너무 많고 절실하며 외침이 크므로 서로 엉키고 혼돈되어 그 가닥을 추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잠시 혼돈을 빚고 순간 잘못 판단하여 아미타 부처님께 보고한 것이 틀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세음(觀世音) 보살은 용신(龍神)이 되어 중생들의 소망을 다시 정확하게 듣고 미처 들어주지 못했거나 잘못 보고하여 혜택을 보지 못한 이들을 도왔다.

바) 관자재(觀自在)보살과 뱀신(巳神) : 무지한 인간들을 일깨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몽매한 중생들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게 하도록 교육하는 보살이다. 중생을 가르치다가 희귀한 중생을 만나 스스로 막히게 되자 복잡하고 오묘한 중생계에 내려와 모든 중생의 근기(根氣)를 실제로 체험하고자 관자재(觀自在) 보살은 뱀신(蛇神)이 되어 문(文)을 행하여 학문의 폭을 넓히게 하였다. 경기 불교

포교사 고시 특별강좌

- 개강일 : 12월 20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포교사 고시 총정리
- 강사 : 포교사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문화원 소식

경불원 소식

● 백인에게 들는다 (마흔네번째)

불기2550(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정무스님의 "정명의 길"을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후원자의 밤 행사



불기2550(2006)년12월16일(토) 오후 5시 후원자 및 강좌수강생, 불자님들을 모시고 조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 호국 신홍사 중창불사 회향 기념 대법회

2007년1월7일 (일)12:00~16:00 제17보병사단 전차대대 호국신홍사 중창불사 회향 기념대법회가 학성선원 조실 우룡 큰스님의 여러 스님들과 군관계 여러 불자님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 성도재일 행사

불기 2551년(2007)1월26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1월25일 저녁 10시부터 철야정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규/강/좌

● **한복만들기 : 매주 금요일 7시**
(강사: 김혜경, 6개월 300,000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락 초급반 강좌 실시**
2007년 1월 12일(금)오후7시 (강사:고철성)
경락 초급과정 강좌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번학기에는 경락의 기본원리부터 새롭게 시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행/상/담/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상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전화는 031)251-1083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교/계/소/식

▶ 한국 최대규모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내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SETEC서 개최

한국 최대 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 불교박람회'가 내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에 걸쳐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전관에서 개최된다.

(주)제이컨벤션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찰건축 및 유지보수·불교용품·종단 및 단체·전통차·첨단포교·불교장례문화 등 불교와 관련된 분야가 총 망라해 전시된다. 또한 행사기간 내 세미나 및 각종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706-3493



▶ 캄보디아 시엠립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밀랍 속 신들의 도시가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만나 변화의 용틀임을 시작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캄보디아 정부가 11월 21~2007년 1월 9일 캄보디아의 시엠립 일대에서 '앙코르-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06' 행사를 개최한다. 신라와 크메르 문명 등이 빛어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맛볼 수 있는 50일간의 문화축전이다.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 엑스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을 겸한 행사이기도 하다.



- 베스트 불서 10권 -

- 1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정도)
- 2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조화로운삶)
- 3 달라이라마와 함께한 20년 (청전/지영사)
- 4 인연법과 마음공부(해국/효림)
- 5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김재성/아름미디어)
- 6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민병직/운주사)
- 7 맑고 향기롭게 (법정/조화로운 삶)
- 8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능행/도솔)
- 9 꽃비 (원성스님/마음의 숲)
- 10 꽃과 벌 (청안/김영사)

2007년도 상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7년 1월 ~ 3월 과정

과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 강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15개강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17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정엄스님	20명	5주 50,000원	천수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2/21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 강좌	웰빙요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1/3개강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1/16개강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10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초급)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수시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12개강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정명스님	100명	무료	"신통이나 기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1월 20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서산 분석사, 간월암, 보원사지	1월 21일 오전 7시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